



급락 국면에 기억할 12가지

전일 국내증시가 급락 마감했다. 일본악재(Japanic)와 함께 미국 금리인하, 무역분쟁 이슈가 노출된 후 투자심리 안정에 도움이 될 모멘텀이 사라지며 투매양상이 연출된 것이다. 냉각된 투자심리를 안정시킬 마땅한 위로와 대안이 떠오르지 않는다. 우선 이성적 투자판단이 가능하도록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것이 필요하며, 아래의 12가지를 기억하기를 조언한다.

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 김형렬

- ① 증시 급락으로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2016년 2월과 6월로 당시 브렉시트, 도이치방크 파산설, 국제유가 급락 등 대외적 악재와 개성공단 폐쇄 등 지정학적 리스크의 복합적 충격 때문. 이후 3개월 수익률은 플러스를 기록
- ② 대외악재 영향으로 외국인 이탈을 걱정하지만 현재 외국인 보유지분은 전체 시가총액의 약 38%로 지난 1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. 올해 외국인 누적 순매수 금액은 약 7조원으로 2016년 이후 최대 규모
- ③ IT섹터의 시가총액 비중은 약 34.8%로 지난 3년 사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. 이익감소의 충격이 작지 않지만 여전히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
- ④ 코스닥 급락을 이끈 것은 바이오 업종의 성장주에 대한 신뢰감이 약화되었기 때문. 게다가 제약/바이오 섹터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지만, 여전히 전체 시가총액의 9%를 차지
- ⑤ MSCI Korea 의료섹터의 12개월 예상 PER은 7월말 기준 80.4배를 기록
- ⑥ Wisefn 기준 코스닥 기업의 2019년 예상 영업이익과 순이익(지배)은 각각 9.6조원, 6.9조원으로 집계. 1분기까지 달성률을 고려할 때 하향조정 가능성이 크지만, 거래소 기업과 비교해 이익모멘텀의 하락 충격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. 코스닥 기업의 고객층이 국내 기반의 B2B, B2C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

- ⑦ 한일 외교분쟁의 탈출구는 쉽게 찾기 어려울 전망. 다음 주 74주년 광복절을 기점으로 일본과 아베 정부에 대한 비난 수위는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우리 정부도 '독도방위훈련'을 준비하고 있고, 내수기업은 광복절 행사와 연계된 애국마케팅을 계획
- ⑧ 아베정부는 8월을 넘겨 9월 중순에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이며, 10월 새로운 일왕 즉위식까지 지금의 긴장모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
- ⑨ 상하이에서 열린 미중 무역협상은 소득 없이 결렬. 다음 고위급 협상은 9월 워싱턴에서 열릴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, 이전까지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율을 높이는 압박을 가할 전망
- ⑩ 한국경제의 침체위험이 강화되며 외환시장에서 원화의 가치가 이를 반영하기 시작. 대외 악재에 금융산업 및 자본시장 보호에 미온적이었던 정책당국도 적극적인 시장 개입의 가능성을 높이는 변화. MSCI 신흥국지수 리밸런싱을 앞두고 외국인 수급 부담을 완화시켜줄 변수
- ⑪ 경기침체와 기업이익 감소를 반영한 저점은 코스피 기준 1,980p. PBR 기준 0.8배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이하의 영역은 상장기업의 재무적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에만 해당
- ⑫ 코스피 1950p 수준은 FY1(2019년) 기준 PER이 14.7배로 높지만, FY2(2020년)을 기준하면 11.7배로 낮아짐.